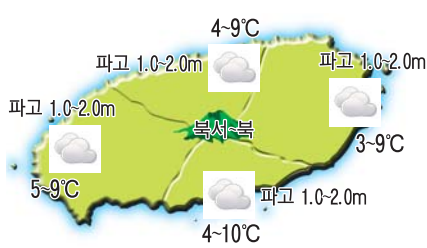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와 생활 12월 26일 월요일 음 12월 4일 (11물)

기상정보

흐림



제주는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3-5℃, 낮 최고기온은 9-10℃로 예상된다.

Table with precipitation probabilities for Jeju, Seongsan, Goseong, and Seogwi.

Table with sunrise/sunset, moonrise/moonset, and day/night lengths.

식중독지수 주의, 감기가능지수 경고

Table with air quality index (PM10, PM2.5) for Jeju, Seongsan, Goseong, and Seogwi.

Table with 24-hour temperature and weather forecasts.

월드뉴스

파키스탄 '자살 시도 처벌법' 폐지

대통령 형법 개정안 서명

파키스탄이 영국 식민지 시대부터 내려온 '자살 시도 처벌법'을 폐지했다고 AP통신 등 외신과 현지 매체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파키스탄 대법원을 경비하는 경찰. (기사 내용과는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아리프 알비 파키스탄 대통령은 지난 23일 오후 이른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인민당(PPP)이 개정안을 냈고 지난 5월 상원까지 통과했다.

개정되기 전 원법은 1947년 파키스탄 독립 이전 영국 식민지 치하인 1860년쯤 제정된 것으로, 자살을 시도한 이에게 최대 징역 1년형이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었다.

세바즈 샤리프 총리의 보좌관인 살만 수피는 이번 개정안 서명을 환영하며 "절망에 빠져 극단적 수단을 고려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처벌 대신)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중도 좌파 성향의 파키스탄

세계보건기구(WHO)의 2019년 통계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연간 자살률은 10만 명당 8.9명 수준에 이른다.

한리일보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website, phone, and address.

백록담



김성훈 편집부장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고작 한주밖에 남지 않았다. 매년 이맘때면 한탄하며 나오는 그말, "어제가 새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그야말로 1년이 손살같이 흘러갔다.

한해의 끝자락 12월, 유독 도민들을 쓰라리게 하며 제주의 민낯을 보여주는 보도가 쏟아졌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2022년 전국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제주 지역 고독사 증가율이 전국 최고란다.

1년 후 2023년말엔 좋은 소식만 있길 소원한다

감하는 이들이 많다는 얘기가. 2017-2019년 전국 연평균 고독사 증가율은 8.8%인데 제주는 무려 38.4%를 기록했다.

새 6%가량 줄었다. 제주사람들은 소득도 적다. 2021년 1인당 개인소득이 전국 17개 시도 중 꼴찌다.

국에서 가장 높다. 하나하나 열거하니 제주사람들 어떻게 버티고 살아가는지 신통하기만 하다.

한 집의 가장인 50-60대의 슬픈 현실 못지 않게 제주에 사는 20-30대 젊은층도 삶이 고민과 고통의 연속이다. 청년층 상대로 삶에 대한 인식조사를 벌였더니 절반가량이 제주사회에 대한 최대 불만으로 '일자리 부족'을 꼽았다.

그렇다고 물가가 낮을까. 제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분기 0.9%에서 지난해 2분기 2.8%로 큰 폭 오른 뒤 지난해 4분기 4.0%, 올해 1분기 4.7%, 2분기 6.4%, 3분기 7.0%를 기록하며 1년 넘게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바닥을 경험했으니 이제 오를일만 남았다 하지 않은가. 묵은해가 가고 새해가 눈앞에 다가오니 그 기대가 더 커진다.

언론매체는 매년 12월말이 되면 10대 뉴스를 선정해 보도한다. 10대 뉴스는 그 한 해를 함축한다. 희망을 기대했던 2022년 제주, 사건 사고로 얼룩졌고 각종 현안에 따른 지역 갈등은 해소되진 커녕 더욱 심화돼 또 해를 넘어갈 모양새다.

열린마당

"ESG시대 기회로 사회적 경제 역할 충실"

친절은 언제나 우리 곁에



김우진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2020년 초반 가장 중요한 경제 키워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라고 할 수 있다. 2021년, 2022년 대한상공회의소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0.3%가 ESG에 부정적인 기업 제품을 의도적으로 구매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20-30대 응답자 64.5%가 더 비싸더라도 ESG 실천 기업의 제품을 구매할 의향을 보였다.



양혜연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2022년도 어느새 마무리되고, 2023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다. 올해를 돌아보며 반성도 하고,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연락도 하고 그렇게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다.

친절한 공무원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겐 친절하지 않았던 공무원, 친절했던 동료였나 하고 되돌아보게 됐다.

"나이가 들수록 친절함은 행복과 동일한 것임을 알게 된다"라는 미국의 배우 라이오넬 베리모오의 명언처럼, 내년에는 더욱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여 행복감을 느끼고 싶다.

생활환경과에서는 2주에 한 번씩 친절에 관한 명언, 친절 사례를 공유하고, 한 달에 한 번 부서 내 친절지기를 선정하는 등 다양한 친절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친절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으며,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리면 있는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내년에는 내 가족, 동료, 민원인 모두에게 더욱 친절하게 대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해 본다.

Advertisement for '감귤 신제품 분양' (Citrus New Product Distribution) for 2023, listing various citrus varieti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All Varieties Citrus Seedling Distribution), listing citrus varieti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우량 감귤묘목' (Quality Citrus Seedlings), listing citrus varieti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감귤묘목 분양' (Citrus Seedling Distribution), listing citrus varieties and contact information.